

# 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
문의	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
	조진영 전화: 880-5285, 이메일: irwy@snu.ac.kr

배포일: 2023.12.15.(금)

## 서울대학교, Springer Nature 출판사와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픈액세스 출판 계약 체결

- 서울대학교(총장 유흥림)는 Springer, Nature, BMC 등의 학술 저널 브랜드를 운영하는 글로벌 학술 출판사 스프링거 네이처(Springer Nature)와 3년 간(2024년~2026년) 오픈액세스 전환계약(OA Transformative Agreement)을 체결했다.
-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은 학술지 구독료를 오픈액세스 출판비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열람(Read) 권한과 오픈액세스 출판(Publish) 권한을 하나로 결합한 형태의 계약이다.
- 이번 계약으로 서울대 연구자(서울대병원 연구자 포함)는 기존 구독 자료인 Springer, Academic Journal(nature.com)과 더불어 Adis, Palgrave 저널을 포함한 2,000여 종 이상 저널에 액세스가 가능하며, 별도 논문출판비용 지불 없이 연간 일정 수의 논문을 OA로 출판할 수 있게 된다. 2024년에 267편, 2025년에 280편, 2026년에 294편으로 OA 출판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OA 계약을 체결하였다.

□ 중앙도서관 장덕진 관장은 “이번 계기로 대학 소속 저자는 무료로 오픈액세스 논문 출판이 가능해졌으며, 저자 개인의 저작권 유지 및 높은 연구 가시성과 연구 영향도를 확대하게 되었다.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우리 대학이 출판한 논문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오픈액세스 학술연구 환경 조성에 국내에서 우리 대학이 선제적으로 실천한 사례이다. 앞으로 해외 주요 출판사와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을 확대해 학술출판 및 유통에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연구자가 자유롭게 학술논문을 출판·이용할 수 있는 학술연구 생태계를 마련할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□ 스프링거 네이처 OA Vice President인 Carrie Webster는 “한국이 오픈 사이언스 환경으로 향하는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와 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. 우리의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은 전 세계 3,500개 이상 기관의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픈액세스 성장과 오픈액세스 출판으로의 전환 달성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” 고 하였다.

□ 아울러 중앙도서관장은 “이번 스프링거 네이처와의 전환계약은 오픈액세스와 관련한 국가 정책 및 대학 거버넌스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학에서 연구처와 중앙도서관이 협력하여 추진한 모범적 사례로, 지난 11월 21일 「미래 오픈액세스 전략」 포럼(주최: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, 주관: 서울대학교, 한국연구재단)에서 내용을 공유하였으며, 앞으로 우리나라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의 훌륭한 모델을 제시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□ 담당부서: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개발과 학술지·전자자료 구독/관리  
(02-880-5293, 5286)